

低公害 自動車の生産

환경청 대기보전국
국장 김형철



87년 7월 1일

이날은 우리나라의 大氣環境保全行政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날로 길이 기억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약 3년만에 걸친 低公害自動車の 생산보급준

비가 그 결실을 보아, 이날을 시점으로 하여 국내에도 國產低公害自動車が 판매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저공해자동차로 運行을 轉換하는 4번째 국가가 된다.

低公害自動車.

“

7월 1일을 기해 국내에도 국산저공해자동차가 판매됨에 따라 우리나라 대기보전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케 됐다

”

이것이 우리에게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기계공업·관련산업효과·국제적무역이나 신뢰등 여러면에서 생각할 수 있겠지만 環境 내지 공해 방지측면에서만 보더라도 몇가지 의미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環境保全을 위한 根本的 原因處方의 시범이라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140만대의 자동차가 있으며 그중 반은 揮發油나 LPG를 사용하는 자동차이다. 즉 승용차가 반정도를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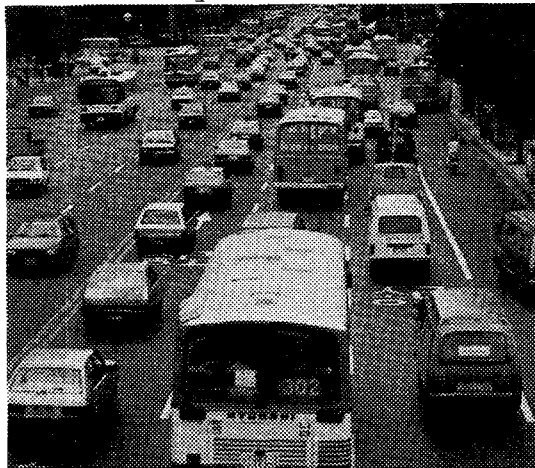
자동차로 인한 배출가스가 Smog를 일으키는 주범이고, 이러한 Smog 형성의 原因物質인 NOx HC는 이들 揮發油·LPG자동차가 그 대부분을 배출한다.

한편 우리나라 승용차 1대와 일본의 승용차 한대를 비교해 보면,

일본은 低公害自動車이고 우리는 아닌 상황에서 우리나라 승용차의 1일주행거리는 47km/일 인데 비하여 일본은 23km/일, 배출가스량은 우리가 7일때 일본은 1에 지나지 않아, 결국 우리나라 승용차 한대가 하루에 배출하는 유해가스량은 일본의 승용차 14대가 배출하는 양과 같다고 하겠다. 다시 말하면 서울의 30만대 승용차가 하루에 내뿜는 가스는 일본동경의 500만대 승용차가 내뿜는 양과 같다는 계산이다.

低公害自動車の 보급은 이러한 배기가스로부터의 도시민의 해방을 의미한다. 더우기 自動車路上단속이 연간 총차량대수의 5%를 넘지 못하는 현실에서는 大氣保全의 근본적 원인처방임에 틀림없다 하겠다.

둘째, 大氣中の 납오염으로부터의 해방이다. 기존차량은 유연휘발유를 연료로 하기 때문에 대기중에 상당한 납의 오염을 유발하였음은 不問可知라 하겠으며 일본에서는 공기중의 납오염



<자동차 노상단속이 연간 총차량 대수의 5%를 넘지 못하는 현실에서 저공해자동차 보급은 근본적 원인처방이다>

이 사회문제로까지 비등한 예가 있다. 저공해 자동차는 반드시 무연휘발유를 사용해야 그 효능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우리환경에서 납오염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케 되었다는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셋째, 環境行政上 큰 의미는 관련부처와 업계 그리고 국민이 공동노력으로 저공해자동차보급에 다함께 기여함으로써 環境보전목표를 향한 조화된 업무추진의 진면목을 보여주었고, 이것은 環境문제해결에 있어서 새로운 협조체제구성의 기반을 다졌다는 점이다.



“

이번의 저공해자동차 보급은 환경보전을 위한 근본적
원인 처방의 시범이라는데에 큰 의미가 있다

”

저공해자동차의 생산과 보급, 무연휘발유의 생
산과 보급을 87. 7. 1이라는 시점을 향하여 차
질없이 이루어진 점은 우리 국민과 기업체 그리
고 관계기관의 전폭적인 협조의 産物이다. 經企
院·재무부·상공부·동자부·교통부·환경청등

의 행정기관·정유회사·석유유통업체·주유소·
유류저장시설업체·주유기업체·차량사용가등 이
루 해야될 수 없는 관련인사의 협조로 이루어진
위대한 교향악이라 하겠다.

모든 演奏者와 指揮者에게 큰절을 드린다. *

“제2회 환경보전 생활수기모집”

우리 세대와 우리 자손이 살아갈 유일한 땅인 이 강산을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보전하기 위
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 줄일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더우기 “명예회원”들에게 있어서는 환경보전을 위해 각 지역에서 지도자로서 솔선수범해야 하는
중대한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협회 명예회원께서 환경보전활동을 위해 겪으신 생활수기를 공모, 여러분의 활동을 널
리 알리고자 합니다.

▲ 자 격 : 본 협회 “환경보전명예회원”

▲ 원고매수 : 10매 이상 (200자)

▲ 접수방법 : 연중 계속 접수

▲ 계 재 : “환경보전협회보”(격주간) “환경보전명예회원보”에 게재(소정의 고료 지급)

▲ 시 상 : 게재된 수기들을 연말에 종합심사하여 시상함

▲ 접 수 처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4가 45 대한상의빌딩 12층

사단법인 환경보전협회 홍보부

社 團 法 人 環 境 保 全 協 會